

조현오 막말 파문... 사퇴 압력 확산

〈경찰청장 내정자〉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자살’ 발언이여 오열하는 천안함 유족들에 짐승 비유 野 “물러나라”... 여권서도 책임론 제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역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지난 3일말 경찰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 “무엇 때문에 사망했느냐.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역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조 내정자는 “송구스럽다”며 “경찰이 위촉되지 않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계까지 파문은 확산했다. 또 조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전직 검찰 수뇌부 관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권이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

구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비극적으로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인 용서 못할 패륜적 망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 내정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조 내정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토해내는 망발도 문제지만, 반성과 사과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만방자함은 더욱 문제”라며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친노인사들도 이날 오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내정자에 대한 파문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자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든 일에는 선수가 있게 마련”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역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마포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조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내정자가 노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외에도 천안함 유가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과 함께 “승진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나 실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통하여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돌리고 있다.

조 내정자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나 강연에서 오열하는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고 그러려면 슬픔을 승화시킬 줄 아는...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며 “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오열하는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3월 10일, 부산경찰청장 부임 인사차 출입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며 “승진을 하려면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戰雲 감도는 인사청문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7개 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가량 남아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위장전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는 이번 개각과 관련, ‘친위 내각’이라고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김 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

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에 공격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일 뿐 아니라 이번 인사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위해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삼임위법 대책회의를 수시로 갖고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과 탈세, 비리 의혹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5일 “이미 위장전입과 탈세, 비리 연루 의혹 등

이 쏟아지고 있다”며 “자질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성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인 채택을 관철할 계획이다. S조선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함께 파헤칠 태세다.

이재오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격수로 직접 나서 지난 7·28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사장 유임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진다는

내정자들 막말·탈세·위장전입 ‘의혹더미’ 민주 ‘파상공세’에 한나라 ‘철통수비’ 맞서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신재민 내정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양도세 회피 등 각종 의혹과 관련, 금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검증 위주로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치른다는 전략이지만,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의 흠집내기에 집중할 것에 대비, 이에 맞설 ‘수비수’를 배치하는 등 인사청문회 전락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육민 원내대변인은 “정검증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여당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비난을 위한 비난에는 끌려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신경전은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시기를 놓고서도 가열되고 있다.

당초 해당 삼임위의 간사 협의를 통해 2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26일로 연기하자고 입장을 바꾸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습 드러낸 광화문 어떻게 달라졌나

현관 고종 중건당시 글씨로 바뀌

15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광화문은 고종 중건 당시인 1865년 모습을 기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2006년 이번 복원작업에 들어가 기 전의 ‘1968년 복원판’과 대체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광화문이 콘크리트였던 데 반해 이번에는 목조로 복원됐다는 점이다. 또 현관과 위치, 서까래 등 ‘1968년 복원판’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많고 목조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복원된 광화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 현관이다. 1968년 콘크리트 복원 당시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을 기초로 만들어 붙였던 광화문 현관이 이번에 고종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1900년대 초의 유리원판 사진을 디지털로 복원해 제작한 광화문의 새 현관은 고종 때 공사책임자였던 훈령대장 겸 영건도감제조 임태영(任泰瑛)의 글씨다.

또 복원된 광화문은 기존 위치에서 남쪽으로 11.2m, 서쪽으로 13.5m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각도도 경북궁 중심축을 기준으로 3.75° 비틀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았다.

광화문의 서까래(椽木)는 1968년 복원 때 일제 당시 잘못된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 크기가 15cm로 얇아 비례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복원에서는 이 역시 21cm로 바로잡았다. 지붕과 처마를 떠받치는 서까래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문루(門樓)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튼튼해보이게 됐고 보기에도 더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한번도 어려운데 사면 단골?

서청원·염동연 등 또 포함돼 빈축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과거에도 사면을 받아 복권된 바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이번 특별사면의 이수였던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2년 대선 과정에서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6년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 명목으로 32억 원을 모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999년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수위 협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2000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는 염동연 전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을 선거 받은 지 1년6개월 만에 복권됐다.

또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1997년 개천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바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이번에는 회사에 622억 원의 손실을 입혀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에 사면, 복권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반복되면서 특별사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바이블칼리지 8월 학기 신(편)입생 모집

CHWON BIBLE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사회교육원 개강

사회교육원 개강을 위해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학사운영은 철저하며, 취업률도 높습니다. 학비도 저렴합니다. 입학상담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모집

신(편)입생 모집을 위해 입학상담을 실시합니다. 입학상담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교수진

- 1. 신학사: 김태호
- 2. 신학사: 김태호
- 3. 신학사: 김태호
- 4. 신학사: 김태호
- 5. 신학사: 김태호
- 6. 신학사: 김태호
- 7. 신학사: 김태호
- 8. 신학사: 김태호
- 9. 신학사: 김태호
- 10. 신학사: 김태호

생활관 등록기념 - 신입생 전원 첫학기 장학금 50% 지급!

-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졸업생 취업률 95% 이상
- 졸업생 100% 목사안수, 선교사 과정(학비보조)
- 학비특사 반수
- 단기 과정대학 → 3년, 대학원과정 → 1년
- 니미타학 제정받아 즉시 입학
- 선교생 장학 혜택(선교비) 매우 지원
- 광주지역 스콜버스 운행
- 학생모집 - 주간반, 야간반 (월, 화, 수)
- 월요일, 화요일, (주, 목, 수) 휴식(토요일)
- 통신과정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학습 가능

광주바이블칼리지 새원사범교육원

www.biblecollege.or.kr

152-2222-1111